

수십개 특허로 만든 신제품이 무기... 150여 제품 출시 소형 커피머신 시장 90% 장악한 동구전자

성장기업의 비결

1989년 9월 미국 뉴욕의 한 사무실. 지인을 기다리던 한 청년에게 여직원이 음료를 건넸다. 책상 한쪽에 놓인 소형 커피머신에서 추출한 커피였다.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6개월간 미국을 떠돌던 서른살 청년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한국엔 지하철이나 사무용 건물 복도 등에 깔린 대형인스턴트 자판기만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이거다!' 하고 그는 무릎을 쳤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인과 면담을 마친 청년은 그 길로 귀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박원찬 동구전자 회장이 필생의 업으로 삼은 소형 커피머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동구전자는 국내 소형 커피머신 시장을 90% 장악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소형 커피머신 시장 장악
박 회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마포에 조그만 작업실을 구했다. 잘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우여곡절 끝에 창업에 나선 사위의 초라한 작업실을 찾은 장인은 혀를 찼다. 그렇게 2년여가 흘러 동구전자의 첫 작품이 나왔다. 지금도 식당이나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티타임' 자판기의 원조다.

이렇다할 팔로가 없던 박회장은 트럭에 제품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의 대형 자판기 대리점을 찾아다녔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생산과 판매를 모두 책임지며 고군분투하던 박 회장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제품의 시장성을 눈여겨본 삼성전자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제안하면서 박회장은 성장의 발판을 닦게 됐다.



소형 인스턴트 자판기 개발 삼성전자 OEM 공급 성장 발판

중국산 공세 기술 개발로 극복 러시아·미국 등 40여국 수출

버튼만 누르면 30초내 커피 추출 전자동 커피머신으로 제2 도약

티타임과 함께 '베누스타'라는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동구전자는 국내 커피머신업계에서 명실상부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에 캐리어, LG, 동서식품, 한국네슬레, 롯데칠성음료, 웅진식품, 현대엔탈케어, 교원 등에도 OEM 제품을 납품했다. 1995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40여 개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3년엔 제5회 무역의 날에 300만달러 수출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동구전자가 30년간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업 이후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한 덕"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찬 동구전자 회장이 경기 성남 본사에서 커피머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소형 인스턴트 커피머신이 점차 인기를 모으면서 경쟁업체도 등장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도 밀려오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기술개발로 맞섰다. 경쟁자들이 쫓아올 무렵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며 추격을 뿌리쳤다. 동구전자가 그동안 내놓은 신제품 종류는 줄잡아 150개 이상이다.

지난 30년간 쏟아부은 투자금만 500억 원이 넘는다. 동구전자는 수십 종의 발명특허와 국제인정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업소용 전자동 커피머신 독자 개발
동구전자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소용 전자동 커피머신(사진)을 통해서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기계다.

기존 반자동 커피머신은 커피숍 매장 직원의 수작업을 동반하는 시스템이다. 반자동 커피머신은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1분30초가량인데 전자동 커피머신은 30초면 충분하다. 유럽 등에서는 반자동 커피머신을 전자동 커피머신이 대체하는 추세다. 수입 커피머신과 달리 커피

추출기를 분리할 수 있어 청소 등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전자는 다음달부터 신제품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수입 제품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전자동 커피머신은 기계를 다루는 직원의 손맛에 따라 커피맛이 달라지는 반자동 기계에 비해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빠른 시간에 커피를 제조할 수 있다는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수입 전자동 커피머신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녹색 레미콘' 유진기업 독주 채비

대행사 중 유일하게 저탄소 인증

오는 30일부터 공공기관의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면서 시멘트·레미콘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 전망이다. 업계에선 대행사 중 유일하게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유진기업이 당분간 이 제도의 수혜를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받은 건축자재와 철골 구조물 등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무 구매 대상 제품군이 넓어진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공개해야 하는 1단계 인증(중소발자국)과 이를 바탕으로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4.24% 줄여야 하는 2단계 인증(저탄소 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제품으로 LG하우시스의 단열재 패네폴(PF) 보드와 포스코의 철골 구조물 등 157개가 선정됐다. 시멘트·레미콘업계에선 대행사 중 유일하게 유진기업의 레미콘

이 포함됐다. 유진기업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레미콘 규격 다섯 가지에 대해 지난 2월까지 모두 2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레미콘업계 2위인 아주산업을 비롯해 쌍용, 한일, 아세아, 삼표, 일진 등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1단계 인증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역시 유진기업에 호재다. 현행법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만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였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바꿔 모든 건축물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기준 완화와 함께 세금 혜택(취득세 등)도 있어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이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평가 때 저탄소 레미콘을 쓰면 조경 및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 과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저탄소 레미콘은 일반 레미콘에 비해 비싸지도 않아 도입만으로 수익원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른 레미콘업체 두 곳도 환경부에 2단계 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유진기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화장품 DIY세트 내놓은 코스모마이징

10여 가지 피부 고민에 맞춰... 162개 '나만의 화장품' 제공

'메디셀프'라는 자가 제조(DIY) 세트를 통해 완성할 수 있는 화장품은 162개에 달한다. 이 제품은 한 개의 베이스와 세 개의 캡슐을 섞어서 만든다. 캡슐 중 두 개는 아홉 가지 기본 종류 가운데 소비자의 피부 고민에 맞춰 선택한다.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하면 162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간단한 피부테스트로 시작 전용 플랫폼에 고민 입력 선택할 제품 조합 알려줘

한 제품이 메디셀프다. 메디셀프는 간단한 피부 테스트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10여 가지 피부

고민을 전용 플랫폼에 입력하면 어떤 조합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려준다. 가격은 11만원이다. 김 대표는 "나만의 화장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맞춤형 화장품에 비해 상세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메디셀프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초 영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최근에는 중국 진출도 논의 중이다. 그는 "메디셀프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하고 개발한 제품"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가라앉는 대로 예정된 해외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이들을 위한 마스크 전용 에센스 '힐어'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천연물 기반의 향이 배합돼 착용 부위에 바르고 마스크를 써도 상쾌하게 호흡할 수 있다.

윤혜은 기자 soul@hankyung.com

현대L&C, 외장재 시장 진출

공장·창고 등 지붕 마감재 출시
건축자재업체 현대L&C가 고품질 지붕 마감용 외장재 'TPO 방수시트'를 6일 출시했다. 인테리어 내장재 중심의 제품군을 외장재로 확대하고 나섰다.
TPO 방수시트는 생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하지 않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지붕 외장재다. 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 폴리프로필렌(PP)을 기반으로 생산한다. 지붕 외장재는 대형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빌딩 지붕의 최종 마감재로 오염과 누수를 막는다.
현대L&C의 TPO 방수시트는 습기, 비, 바람 등 외부 자연환경에 노출되

라도 방수 등의 주요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교환 주기가 10년으로 지붕 외장재로 활용되는 에폭시, 우레탄 등 도포식 제품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시공에 필요한 시간이 50% 이상 줄일 수 있다. 흰색의 경우 태양광 반사율이 최대 86%에 달해 여름에 건물 냉방비를 절약해준다. TPO 방수시트를 적용하면 기존 도포식 외장재보다 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L&C는 분석했다.
현대L&C 관계자는 "프리미엄급 TPO 제품을 앞세워 3년 내에 국내 TPO 방수시트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com

NEW 새로 나왔어요

신일전자 '듀얼 자동칫솔' 출시

생활가전기업 신일전자가 치아와 잇몸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듀얼 자동칫솔(사진)을 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양방향 자동회전 칫솔 헤드를 적용해 치과협회에서 권장하는 칫솔질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개의 칫솔모가 치아 안팎을 동시에 닦아주기 때문에 치간, 치아, 잇몸 사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정하는 것은 물론 잇몸 마사지도 가능하다. 미국 듀폰사의 칫솔모를 사용했다.

윤혜은 기자 soul@hankyung.com

한경 BUSINESS

magazine.hankyung.com No. 1294 | 2020.7.6-12

비즈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주간지 값 4,500원

COVER STORY

2020 상반기 BEST analyst 증권사·애널리스트

2020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조사 결과
하나금융투자, '베스트 증권사 대상'...1등 또 지켰다
NH투자증권은 2위로 강종...
메리츠증권 '골드볼상'·삼성증권 '리서치 혁신상' 수상

인터뷰 -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코로나19로 언택트 수요 폭발...
4차 산업혁명 성장주가 이익·투자 독점할 것"
"2분기가 바닥, 3분기부터 기업 실적 회복 예상"

2020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법인영업실,
2회 연속 대상 수상
최우수 NH·우수 신한금융...
메리츠증권·삼성증권도 호성적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5명의 셋별 탄생
36개 부문에서 다관왕 포함 30명 왕좌...
하나금융투자 코스트벤처팀은 13회 연속 '스몰캡' 1위

SPECIAL REPORT I

꾁직한 기업 사건 도맡으며 '재계 해결사'로 주목받는 화우

SK·LG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의 법을 대리인...매출 급상승하며 '대 로펌' '우뚇'

한경비즈니스, NAVER 모바일에서 '구독'하세요
모바일에 더 강해진 한경비즈니스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월간 <이달의 신기술> 7월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R&D 대표기관 및 최고 권위인 공학지식기술훈장사업 공모로 발행하는 <이달의 신기술>

다가온 미래, 인공지능 기반 사회
미래 라이프 패러다임
"차 산업혁명과 융합이 함께 이뤄지도록 우리의 삶에서 접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인공지능(사) 시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달의 신기술' 7월호에서는 4 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향, 그리고 과제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구독문의 및 구독신청: 02-360-4845 / https://goo.gl/u7beDO / power96@hankyung.com
가격 8,000원(정기구독료 연간 5만원) 계좌 038-132084-01-016(기업은행), 1005-102-350034(우리은행)